

회원사동정

포스코

* STS 확장사업 공사 '순항' *

장가항포항불수강이 STS 확장사업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철골 설치공사 착수식을 가졌다.

장가항포항불수강은 증가하는 중국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제강·연주·열연·소둔산세 공장으로 이어지는 상공정 공사를 시작, 현재 14.1%의 종합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2006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포스코가 해외투자사업으로는 최초로 소재를 생산하는 스테인리스 일관공정을 건설하는 것이다.

* 브라질 CVRD사와 양해각서 체결 *

포스코는 브라질 CVRD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스코는 룰라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브라질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CVRD사와 합작한 현지법인인 코브라스코의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코브라스코 펠릿공장의 생산능력확장은 현재 연간 450만톤인 펠릿 생산능력을 600만톤으로 늘려 포스코가 사용하는 원료인 펠릿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것으로 양국간 장기적인 협력증진 차원에서 양사가 적극적으로 추진기로 했다. 이날 MOU는 이구택 회장과 아그넬리 CVRD 사장이 직접 서명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지난달 말 조업정비 기술자들을 코브라스코에 파견해 CVRD사 기술진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공정진단 등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하이드로포밍 부품 첫 수출 *

포스코는 자동차용 하이드로포밍 부품 1350개를 중국으로 초도 출하했다.

포스코가 장안기차향으로 출하한 하이드로포밍 부품은 엔진을 지탱하는 받침대로 기존 공정에 비해 부품을 한 번에 가공했기 때문에 용접 부위 최소화와 가공단계 축소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포스코는 하이드로포밍 부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장안기차향에 이어 닛산자동차 등 일본계 자동차사와도 수출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이드로포밍 기

술은 복잡한 형상의 자동차부품을 만들 때 여러 형태의 프레스로 따로 가공한 후 용접하지 않고, 강판을 튜브 형태로 만들어 튜브 안으로 물과 같은 액체를 강한 압력을 주어 가공하는 최신 공법으로 두께와 강도가 균일한 자동차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대중공업

* 1천500톤급 해경 경비함 진수 *

현대중공업은 해양경찰청에서 수주한 1천500톤급 경비함의 진수식을 특수선사업부에서 개최하였다.

이 함정은 해양경찰청장 부인인 박영희 여사에 의해 진수되어 "제민 8호(해경 함번 1508함)"로 명명되었다.

이 경비함은 길이 98.1미터·폭 14미터·깊이 6.8미터, 최대 시속은 21노트로, 최대 60명이 승선해 32명의 조난자를 수용할 수 있다.

이날 진수한 함정은 동해해양경찰서에 인도되어 독도 영유권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주권 수호 임무를 띠고, 광역해상 경비·해난 구조·어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등을 수행하게 되며, 유의파고 5미터에서도 임무수행이 가능할 만큼 내파성 및 복원성이 우수하고 최대 30일간의 장기 항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무장으로는 20mm 발칸포와 M-60 기관총을 탑재하고 있으며, 1만톤급 선박 예인시스템과 함미 크레인, 헬기 갑판 등의 재난구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선박 12척 13억불 상당 수주 *

현대중공업은 최근 이란과 카타르에서 유조선 8척(현대삼호중공업 6척 포함)과 LPG선 4척 등 12척의 선박을 13억 달러에 수주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이란 국영선사인 NITC사에서 31만7천톤급 VLCC 4척과 16만4천톤급 유조선 4척을 수주했고 카타르 QSC사에서 8만2천m³급 LPG선 4척에 대해 건조의향서를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의 이번 대규모 수주는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중동 선주사의 깊은 신뢰의 결과이며, 현대삼호중공업과의 공동 건조로 선주측이 요구하는 빠른 납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현대중공업이 NITC사에서 수주한 31만7천톤급 초대형 유조선은 길이 333미터, 폭 60미터, 깊이 30.5미터 규모로,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측에 인도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

* 싱가포르항 크레인 40기 수주 *

두산중공업이 싱가포르 항구에 설치될 크레인 40기를 4,200만 달러에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싱가포르 항만청이 발주한 컨테이너 이송용 크레인 국제경쟁입찰에서 중국, 싱가포르, 독일 업체 등을 제치고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 크레인은 선박에서 하역된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옮기는 RTGC(Rubber Tyred Gantry Crane) 타입으로 최대 40톤까지 운반이 가능하다. 특히 이 크레인은 1기당 바퀴수가 기존 설비의 2배인 16개로 안전성이 높은 것이 큰 특징이다.

두산중공업은 이 크레인을 설계에서부터 제작, 공급,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자체기술로 수행하며 오는 2006년 10월까지 발주처에 인도할 예정이다.

* 풍력발전 등 미래사업 기술개발 강화 *

두산중공업이 풍력발전, 플랜트 제어시스템 등 차세대 기술을 이끌어갈 미래사업 기술개발에 본격 나서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이들 기술개발센터를 통해 풍력발전시스템,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소형 가스터빈 등 미래 에너지 핵심사업 개발을 위한 특화된 기술연구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사업들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체 에너지사업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또한 플랜트 제어시스템 개발센터에서도 한국형 원전 계통제어시스템, 분산제어장치 등 각종 플랜트의 두뇌에 해당하는 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에 주력해 기존의 플랜트 설비제작과 함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두산중공업은 이들 기술센터 개원으로 인근에 위치한 관련 연구기관 및 정책결정기관으로부터 효율적인 지원과 함께, 수많은 국책연구기관의 실험설비 활용 및 공동연구도 가능해 짐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 투싼, 신차품질서 세계최고기록 달성 *

현대자동차의 투싼이 미국의 권위있는 시장조사기관인

제이디 파워가 작년 11~12월 신차를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5 상반기 신차품질조사 결과에서 SUV부문 신차투입 첫 해에 세계최초로 최고 점수인 99점을 얻어, 세계자동차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였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차품질조사에서 세계 상위권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현대차의 향후 투입 신차종에 대한 세계수준의 품질 수준 달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급별 평가에서도 쏘나타가 중형차 부문에서 2위를 차지 전년도에 이어 중형차부문에서 품질우수성을 입증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 “쏘나타 V33” 출시 - 고성능 램다엔진 탑재 *

현대자동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되는 북미형 쏘나타 모델의 V6 3,300cc 램다엔진이 탑재된 “쏘나타 V33 프리미어”를 국내 시판한다.

쏘나타 V33 프리미어는 램다엔진을 적용해 동급 최고의 동력성과 주행성능을 자랑하며, 기존 2.0/2.4 모델과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에 첨단 편의/안전사양을 기본 장착해 대형차 이상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성능면에서 북미형 모델에 탑재한 것과 동일한 V6 DOHC 방식의 3,300cc 램다엔진을 적용해 최고출력 233ps/6,000rpm, 최대토크 31.0kg·m/3,500rpm의 동력성과 9.2km/l의 1등급 연비를 실현해 고효율, 저연비를 실현했으며 대형 5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운전시 한 단계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외관 디자인은 라디에터 그릴을 바다칼라로 변경하고, 헤드램프의 베젤내부에 실버칼라를 적용해 세련미와 중후함을 살렸다.

또한 DVD AV 시스템, 사이드/커튼 에어백, 무단계 어 ECS 등의 최첨단 안전/편의사양을 기본으로 장착해 동급은 물론 대형차급 차량을 넘어서는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갖췄다.

삼성중공업

* 전기추진 LNG선 5척 10억불 수주 *

삼성중공업은 최근 미국 웨브론텍사코로부터 15만5천㎡급 LNG선 4척, 일본으로부터 동급의 LNG선 1척 등 총 5척의 선박을 10억불에 수주했다.

이번에 웨브론텍사코사로부터 수주한 LNG선은 길이 285m, 폭 44m이며, 2009년 7월경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수주한 LNG선의 경우 올들어 첫번째로 선주측과 정식으로 수주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의미 이외 5척 모두 연료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동일한 적재량 및 항해속도를 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기 추진방식 LNG선 이라는데 또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전기추진방식 LNG선이란 선박운항도중 화물창에서 자연기화되는 LNG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선박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삼성중공업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형 LNG선이다.

전기추진방식 LNG선은 고온고압의 증기를 사용하는 기존의 스팀터빈 LNG선과 비교시 안전성이 탁월하고, 운항효율이 30%이상 좋아지며 운항시 발생하는 산화탄소화합물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선박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어, 향후 LNG선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들어 발주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우조선해양

* “컨” 4척 약 3억8,400만 달러에 수주 *

대우조선해양이 독일의 함부르크 수드사로부터 컨테이너선 4척을 모두 3억8,400만 달러에 수주하였다.

이번 수주로 대우조선해양은 올들어 총 19척 약 30억 1,400만달러 상당의 선박 과 해양플랜트를 수주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였던 60억 달러에 50.2%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수주 실적을 보면 금액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수주한 19척 중에는 초대형유조선 5척, 대형 컨테이너선이 8척,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1척 등 대부분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대부분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초 카타르가스측과 초대형 LNG선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안정적인 수주가 예정되어 있어 올해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선박은 길이 272미터, 폭 40미터, 깊이 24.2미터로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4,000개를 실을 수 있는 선박이며 23.3 노트로 운항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들 선박을 오는 2008년 12월까지 모두 인도할 예정이다.

* LNG선 초저온 배관 자재 국산화 성공 *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기자재 공급 중소기업인 서흥금속과 공동으로 LNG선용 초저온 밸브를, SJM와 LNG선 배관용 벨로우즈(배관 열팽창 흡수장치)를 각각 국산화에 성공했다.

LNG선용 초저온 밸브와 벨로우즈는 영하 163도의 초저온 상태인 액화천연가스 이송용 배관에 설치되는 고가의 자재로 국내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아 적당 500여개나 되는 밸브 전량을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지역에서 수입해 왔다.

LNG선 건조가 급증하면서 밸브와 벨로우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우수 중소기업인 서흥금속과 SJM에 개발을 의뢰했고, 제품품평회와 설계기술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5년여 만에 개발에 성공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생산에 들어가는 LNG선 중 5척을 시작으로 연간 10여척의 밸브와 벨로우즈를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오는 내년부터 건조에 들어가는 20만m³급 초대형 LNG선에도 전량 공급이 가능해져 밸브 공급 자재비를 크게 낮출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외 업체에 비해 납기와 품질 면에서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건설

* 하와이 “909 카피올라니” 착공 *

포스코건설이 추진하는 호놀룰루 카카야코 지역의 “909 카피올라니” 콘도미니엄 공사가 닷을 올렸다.

지상 32층 1개동의 “909 카피올라니”는 17평형(108가구), 25평형(107가구), 31평형(8가구), 45평형(2가구) 등 모두 225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년 4월 미국 현지인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분양을 마쳤다.

“909 카피올라니”는 전면에 고층건물이 없고 사방으로 창이 오픈되어 있어, 하와이의 명소인 Diamond Head 등 Waikiki view가 가능하고 서쪽으로는 시내 중심이 한눈에 보이는 다양한 전망으로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이란에 12억불 발전소 건설 ***

포스코건설이 이란에 12억달러 규모의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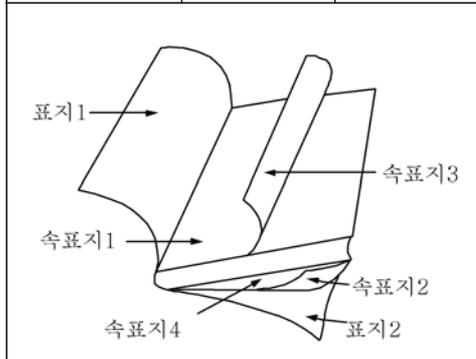
포스코건설은 국내 에너지종합개발회사인 AWI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이란정부가 계획중인 이란의 쿠제스탄과 부셰르 지역에 각각 1000MW급 천연가스 발전소 2기를 건설하게 된다.

이 협약에 따라 AWI와 MAPNA는 각각 70%와 30%의 지분을 출자해 6월 중 합작법인인 AMPC를 UAE의 두바이에 설립할 예정이며, 포스코건설은 현장조사와 기술적 검토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란에서는 최초로 IPP 방식으로 추진될 천연가스발전소 2기의 공사기간은 각각 24개월이며,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광고/회원사 소식 게재 안내 (042)828-6511~2

대한용접학회지 광고 게재료 안내

게재면수	필름규격 (A4)	광 고 료		
		1회 게재	색 상	흑 백
표 지 1	21×30cm	500,000원	칼 라	"
표 지 2	"	450,000원	"	"
속표지 1	"	450,000원	"	"
속표지 2	"	350,000원	"	"
속표지 3이후	"	300,000원	"	150,000원



- * 기타사항 ***
- ① 6회(1년분) 게재시 10%할인 (표지1,2, 속표지1제외)
 - ② 광고필름 제작시 제작비 별도
 - ③ 기사식 단색광고는 15만원
- 광고문의 안내(042-828-6511)